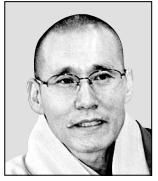


일 주 문



월정사 탐들이 법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년 스님은 1월 10일 월정사 9층석탑 앞에서 탐들이법회를 개최한다. (033)339-6800



제2기 사찰음식교육 수강생 모집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제2기 사찰음식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02)3218-4900



정초다라니 철야정진 기도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초다라니 철야정진 기도를 진행한다. (02)768-8500



청계사 건전청소년 육성MOU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구립 22일 의왕경찰서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통문화대 총장 취임
도자미술사학자인 김재열 전경기도 박물관장은 구립 29일 문화재청 산하 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 총장에 임명됐다.

“동산인 결집... 염불 신행 생활화”

이종현 제4대 동산반야회 이사장



가족법회, 1인 1도반 추천운동 추진
동문 기반한 동산발전 동력 구축
대중화·생활화·정토화 사업 전개

구립 13일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종현 신임 이사장(59·사진)은 요새 늘 전화기를 붙들고 산다. 동산과 인연을 맺은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동산을 관심있게 지켜봐달라 당부하기 위함이다.
“2천 동문의 힘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죠. 동산이 다시 성장 하는 데 동문들이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1인 1도반 추천 운동, 가족법회 등을 전개해 동산발전의 동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듯 먼저 동산인들 챙기기에 나서며 내부 결집을 공고히 하는 까닭은 앞으로 동산이 해나갈 사업에 동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산반야회는 3대 강령인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정토화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행활동의 성숙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전국염불만일회도 1년에 1차례 개최된 것을 분기별로 염불스테이 형식을 빌려 수시로 개최해 불교생활화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장소는 보통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동산 근본도량 ‘아미타사’가 될 가

능성이 높다.
이 이사장은 아미타사 활용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우선은 인근 부지 밭 1천여평을 주말농장으로 운영해 도시에 거주하는 동산인들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텃밭은 학교 기수별, 반별 혹은 개인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가족법회도 병행하면서 신행과 여가활동을 함께 이끌어내는 방침이다.
지금도 직접 밭을 고르기 위해 아미타사를 종종 찾는다. 이 이사장은 다가올 봄이 기다려진다고 했다.
“동산의 정신적 지주이며 초대 법주인 무진장 대종사와 창립자 고 김재일 초대 이사장께서 일궈놓은 업적들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입적하신 후 동산의 구심점이라고 할 만한 것 역시 상실돼 온 것이 사실이지요. 동산가족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만나는 소통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산회원들의 기수별 모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그 연장선이다. 이외에도 불교 대중화를 이끌었던 무진장 대종사와 김재일 이사장의 업적을 선양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그들이 한국불교에 기여한 역할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사찰 법회의 정례화, 기복불교가 아닌 전법불교로서의 재가교육 등 그동안 동산이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종현 이사장은 동산이 앞으로도 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한다며 말을 끝맺었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21세기 한국인상 종교부문 대상 수상



(사)대한불교철재종 종정 진성 스님(부산 자비선원 회주)은 구립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에서 종교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은 2002년 첫 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회인사들을 선정해 수상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인상’ 주최 측은 “진성 스님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골 봉환 및 캄보디아 캄풍수쿠 지역 병원 건립을 비롯해 쌀 60톤 기부 등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자원봉사 대축제서 봉사상 받아



(사)대한불교 유사조계종 김해 불모사 주지 동담 스님은 구립 19일 부산시자원봉사대축제에서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동담 스님은 12년간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매주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음성공양을 펼쳤다. 또 매년 5월 어버이날에는 70대 이상 시각장애인을 인솔해 불나들이 봉사과 11월에는 해운대 동백섬에서 열리는 시각장애인 마라톤대회의 점심식사 제공 등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노덕현 기자

포교원 산하단체, 조한곤 국장 위문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 산하 단체 기관 단체 임원들은 구립 30일 조한곤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의 폐유를 기원하기 위해 동대 일산병원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포교사단,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상담개발원, 중앙신도회,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임직원들과 포교부장 송묵 스님, 포교국장 노후 스님, 신도국장 덕산 스님, 사무국장 해안 스님 등이 함께해 조 사무국장의 폐유를 기원했다.
조 사무국장은 2013년 11월 라오스 자원봉사단 답사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지난 1년 여간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아직 하반신이 자유롭지 못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 사무국장은 오는 12월 31일 국립재활원으로 병원을 옮겨 재활 치료를 계속할 계획이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조 사무국장은 불교 포교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인재다. 불자들이 조 사무국장의 노고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100-028-925647 (예금주: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운영팀)
이나는 기자

“정거장 아닌 정착점되는 대불련으로”

이채은 대불련 53년차 중앙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53년차 중앙회장으로 이채은(건국대 글로벌, 법명 진성인·사진)회장이 취임했다.
이채은 회장은 구립 26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14 대불련 정기총회에서 단독 입후보로 출마해 선거를 거쳐 취임했다.
이 회장은 “2013년 51년차 박지연 중앙회장의 활동을 보고 막연하게 중앙회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오던 중 지난 해 중앙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불련의 한계를 느껴 회장직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느낀 대불련은 대학생 불자들의 정거장 같은 느낌이었다.
“대학생들이 중앙 또는 대불련 지부나 불교 동아리 회장을 하고 난 후 임기가 끝나면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대불련이 잠깐 머물렀다 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 아닌 오래도록 법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불련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2015년 53년차 대불련의 모토는 ‘꽃다발을 든 판다’이다.
“판다(panda)에는 울레 대불련 정적들

이 하나씩 담겨있다. ‘P’는 Passionate(열정적인)의 앞글자로 대학생 불자들이 열정과 주인의식을 갖고 동아리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다. ‘A’는 Activity(활동)의 앞글자로 예비대학생을 위한 수능템플스테이를 비롯해 각 지역의 지회·지부연합활동을 권장·장려할 방침이다. ‘N’은 Network(네트워크)로 불교 동아리를 이끄는 지회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회조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D’는 Dream(꿈)으로 취업준비에 몰두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꿈 관련 교육을 비롯해 통일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계

획이다. 이 회장은 “마지막 ‘A’는 Accomplish(성취하다)의 앞글자로 대불련 회원들과 이런 목표를 이뤄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어릴 때 친구들과 싸우고 오면 어머니께서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그런 그 말을 몰랐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뜻을 이해하게 돼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불교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이 회장은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불교학생회 회장과 대불련 중앙집행위원회 기획장 등을 역임하고, 건국대 불교학생회 회장 당시 가등록 지회였던 불교학생회를 대불련에 정등록했다.
이 회장은 “요즘 대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잘 안다”며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지금 당장 내 행복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대불련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금강대, 제5기 해외봉사단 파견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구립 23일부터 1월 6일까지 제5기 해외봉사단 20명을 파견했다. 동계방학 해외봉사단은 1차 캄보디아(12월), 2차 라오스 파견(1월)으로 진행된다. 1기~4기에 참가한 재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해 교육봉사(위생교육, 예체능 교육, 언어교육 등), 노력봉사(환경미화, 벽화작업, 시설보수 등), 문화교류(현장 생활체험 및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노덕현 기자

Large banner for the New Year (2015) featuring the title '佛紀 2559年 乙未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and details for the '부산불교회관 (부산시청 옆) 여여선원·여여정사' and '자비신행회' (Jabi Shinhaenghui). It lists various members and their roles, including the president and several department heads.